16-13호 2016.4.12

현안과 과제

벤처활성화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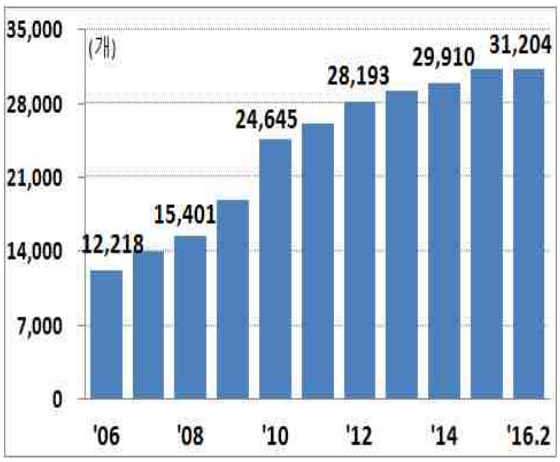
1. 개 요

○ 정부의 창업·벤처 지원 확대에 따라 벤처 기업과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창업·벤처 지원 확대로 벤처기업 증가세 지속
  - 정부의 창업 관련 예산은 2013년 1조 3,968억원에서 2015년 1조 5,393억원으로 10.2% 증가
  - 또한,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됐고 전국 270개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펀드 설립 등 기술 창업 지원이 확대됨
  - 이에 따라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만개를 넘어섰고 2016년 2월에는 3만개를 돌파[1)]

-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재원은 2006년 4.9조원에서 2015년 말 14.1조원으로 약 3배 증가
  - 동기간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 규모도 0.7조원에서 2조원으로 약 3배 증가

< 국내 벤처기업 수 추이 >



자료 : 한국벤처기업협회.
주 :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이 포함.

<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재원과 신규투자 추이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 : 투자재원은 조합(창투조합 및 KVF)의 약정금액 기준임.

1) 단, 벤처기업실태조사(2015년)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약 93%는 기술평가보증·대출을 받은 기업이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은 2.2%에 불과함.

○ 반면에 최근 들어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비중이 급감하고 주요국 대비 창업 심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벤처·창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 창업, 높은 폐업률 등으로 창업 3년 이하 벤처기업 비중은 축소
  · 국내 벤처기업 중 창업 3년 이하의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4년 13.4%로 급감
  · 이는 창업 기업 수가 감소했거나 창업 이후 3년내 폐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2]으로 보임

- 국내 창업 심리도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임
  ·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 기회 인지'가 13%로 스웨덴 70.1%, 미국 50.9%, 이스라엘 47.0% 등 비교 대상국 대비 매우 낮음
  ·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이 42%로 미국 29.7%, 스웨덴 3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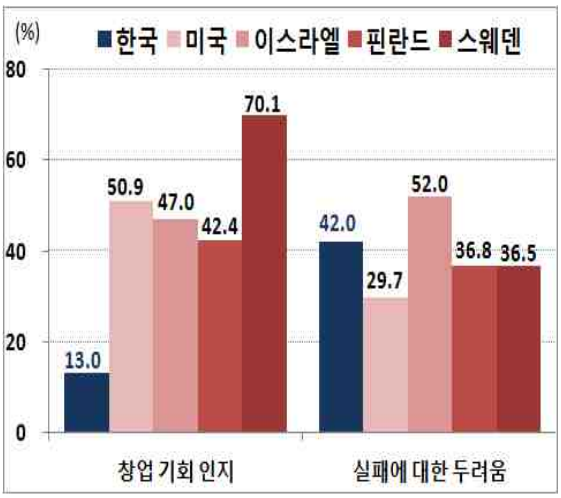
○ 이에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제도를 벤처가 활발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 벤처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연도별 벤처기업 업력 현황 비교 >

	창업 3년이하	4~10년	11~20년	21년 이상	평균
2010	22.8	47.3	25.6	4.3	8.2
2011	26.3	44.2	24.7	4.8	8.1
2012	27.1	41.2	26.1	5.6	8.4
2013	21.3	45.9	25.7	7.1	9.0
2014	**13.4**	**53.3**	**27.9**	**5.3**	**9.2**

자료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년호.

< 창업에 대한 인식 비교 >



자료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주 : 설문조사 결과이며 2014년 기준임.

2)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2%에 불과함.

2. 벤처지원제도의 국제 비교

① 주요 분석 내용

- **(분석 방법) 한국의 벤처지원제도를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창업·벤처가 활발한 국가들과 비교**
  - 벤처지원제도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초기/창업, 중간/성장, 회수 및 재도전의 4단계로 구분하여 국제 비교함
  - 비교대상국가는 창업·벤처가 활발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임[3)]

- **(자료)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사 보고서와 각 국의 벤처캐피탈 통계 등을 활용**
  -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자료는 OECD의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세계은행 등의 조사 보고서를 활용
  - 또한, 벤처·엔젤투자 규모 등은 각 국의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통계를 활용

< 기업 성장단계별 벤처·창업 생태계 구조 >

자료 : OECD, EY G20 Entrepreneurship Barometer 2013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주 : 죽음의 계곡은 자금 부족 및 고갈, 다윈의 바다는 기술 리스크를 의미함.

3) 미국 실리콘 밸리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계속 1위, 이스라엘과 핀란드는 창업국가, 스웨덴도 최근 유럽의 창업 수도(Start-up capital of Europe, The telegraph, how sweden became the startup capital of europe, 2015년 6월 28일)로 주목받고 있음.

② 분석 결과

가. 창업 준비/초기 단계(Pre-seed stage)

○ **한국은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기술 창업의 초기 자금을 주로 지원하는 엔젤투자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음**

- 한국 창업은 생계형에 집중

·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목적은 생계형이 63%로 미국 26%, 이스라엘 13%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 반면, 한국의 기회 추구형(혁신형) 창업은 21%에 불과했지만 비교대상국가들은 모두 50%를 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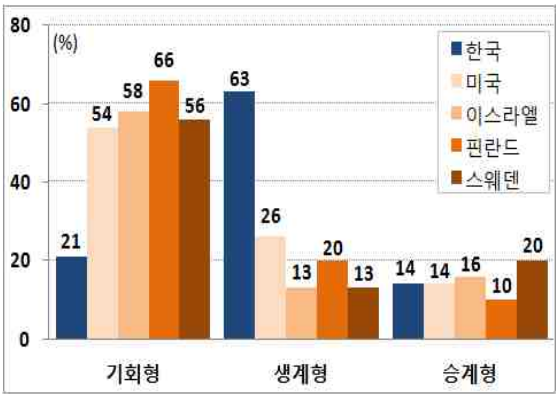
- 한국은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와 투자자 등이 상대적으로 작음

· 한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2010년 341억원에서 2014년 800억원(추정치)으로 2배 증가했고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액도 516.6억원에 달함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도 2011년 369명에서 2015년말 9,468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단, 한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미국의 0.5%, 투자자도 3% 수준에 불과하며 벤처기업 중 엔젤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도 1.8%임

< 창업 목적별 비중 >



자료 : OECD, Entreprenuership at a glance 2014.
주 : 2013년 기준임.

< 엔젤캐피탈 규모와 투자자 비교 >

	규모 (억 달러)	투자자 (명)
한국	1.2	9,468
미국	241	316,600
핀란드	0.9	1,000
스웨덴	5 ~ 5.9	3,000~ 30,000

자료 : 미국 Center for Venture research, 한국엔젤투자협회, FIBAN 외.
주 1) 2014년 기준, 한국과 핀란드는 2014년, 스웨덴은 2012년 평균 환율 적용 환산.
2) 핀란드는 FIBAN, 스웨덴은 VINNOVA 자료로 추정.

○ 한국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이 매우 작고 최근 창업 초기 자금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발달도 더딤

- 한국은 GDP 대비 벤처투자자금 비중이 낮고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도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낮음
  · 한국의 벤처캐피탈 규모는 2014년 기준 8.7억 달러, GDP 대비 0.06%로 미국 495.3억 달러의 1.8% 수준에 불과함
  ·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도 0.139%로 스웨덴 1.427%, 이스라엘 0.3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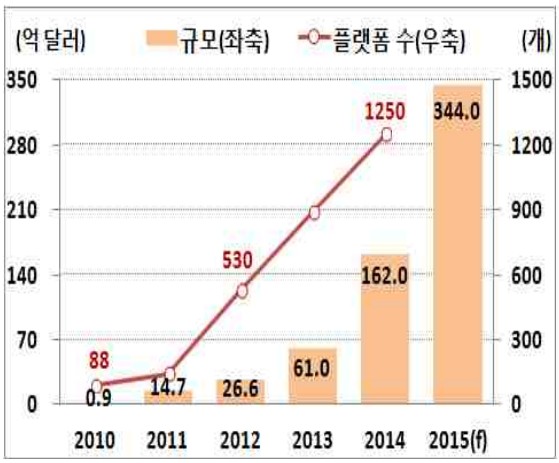
- 최근 창업 초기 자금의 중요 원천으로 인식되는 크라우드 펀딩 발달도 지체
  · 전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2010년 0.9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약 38.9조원)로 성장했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수도 2014년말 기준 1,250개에 달함
  · 그러나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5]되는데 이는 전세계 시장의 0.13%에 불과한 수준

< 벤처캐피탈 규모, GDP 대비 비중,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 >

	규모 (억 달러)	GDP 대비 비중(%)	벤처투자 기업 비중(%)
한국	8.7	0.06	0.139
미국	495.3	0.28	-
이스라엘	11.7	0.38	0.386
핀란드	1.6	0.06	1.378
스웨덴	3.8	0.66	1.427

자료 : OECD, Entrepreneuship at a glance.
주 1) 2014년 기준.
2) 벤처투자 기업 비중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00개 당임.

< 전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 플랫폼 수 >



자료 : Massolution,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2015 외.

4) 한국은 2015년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수가 1,045개 사이나 미국은 3,709개 사(4,380건)로 한국의 3배 수준임.
5) 월간 SW중심사회, 2015.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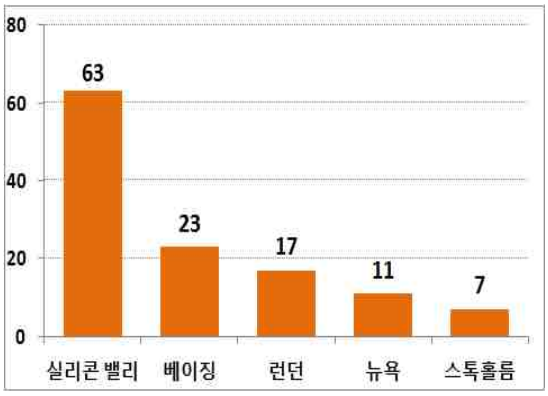
□ 유럽의 창업 수도로 떠오른 '스웨덴 스톡홀름'

○ 창업 성공 사례와 더불어 전문가 창업 커뮤니티 발전 등이 성공 요인

- **스웨덴 스톡홀름은 인구 100만명 당 신생 기업의 가치가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 2003~2014년까지 설립된 스타트업 중 10억 달러 가치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Unicorn으로 명명) 136개 중 7개가 스톡홀름에서 창업
  - 이는 실리콘밸리, 베이징 등에 이어 5위 기록이나 인구 100만명 당 기업 가치는 63억 달러로 실리콘밸리의 81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
  - 스웨덴의 유니콘 기업은 스카이프(Skype, 85억 달러), 스포티파이(Spotify, 80억 달러), 킹 디지털(King Digital, 49억 달러), 모장(Mojang, 25억 달러)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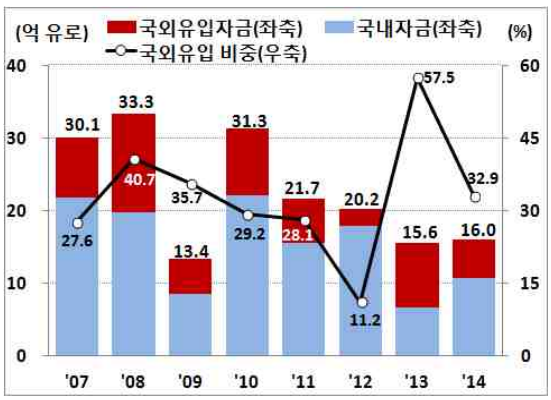
- **창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성숙한 디지털 인프라와 창업 환경, 창업 커뮤니티 발전, 글로벌 시장 중심의 시장 전략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힘**
  - 스웨덴은 인터넷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매니페스토(Manifesto)[6] 등이 창업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
  - 또한, 스웨덴은 자국 벤처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유입되는 벤처 투자자금 비중도 2014년 기준 32.9%에 달함

< 주요 도시의 유니콘(10억 달러 가치 이상의 신생 기업) 보유 수 >



자료 : Atomico.
주 : 2003~2014년까지 창업한 기업 기준임.

< 스웨덴 벤처투자자금의 국내외 규모와 비중 >



자료 : EVCA(유럽벤처캐피탈협회).
주 : 사모펀드(Private equity)의 투자자금 기준임.

6) 2013년 유럽연합의 부의장 닐리 크로스가 EU 내 인터넷 기반 창업 환경 구축을 위해 성공한 기술 창업가, 투자자, 조언가 등의 모임인 창업 커뮤니티를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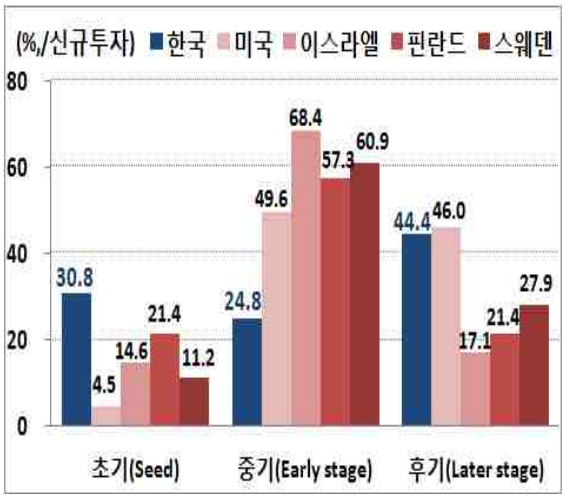
나. 중간/성장 단계(Seed/Early stage)

○ 벤처 기업의 중간/성장 단계를 지원하는 벤처투자 비중이 낮고 기술 이전 효율성도 저조

- 국내 벤처투자는 중간/성장 단계의 지원 비중이 비교대상국의 절반 수준
  - 한국의 벤처투자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비중이 30.8%, 3~7년의 중기 24.8%, 7년 이상의 후기 비중이 44.4%임
  - 그러나 비교대상국들은 벤처투자를 창업 초기보다는 중간/성장 단계에서 유치하는 투자자금으로 인식[7]함. 이에 중기 투자 비중이 50% 이상에 달함

- 벤처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기술이전률은 상승했지만 효율성은 낮은 수준
  -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률(당해년도 기술이전건수/당해년도 신규기술보유건수)은 2010년 23.1%에서 2014년 31.7%로 상승하며 미국, 유럽 수준으로 향상
  - 그러나 미국, 유럽은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 창업이 매우 활발할 뿐만 아니라 기술료 수입도 한국에 비해 매우 큼

< 기업성장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 >



자료 : OECD,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 1) 한국은 초기는 업력 3년 이하, 중기는 3~7년, 후기는 7년 초과 기준.
2) 미국은 업체수 비중임.

< 한국, 미국, 유럽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비교 >

	한국	미국	유럽
기술개발 건수	24,057	23,528	15,829
기술이전 건수	7,495	6,896	5,642
기술 이전율(%)	31.2	29.3	35.6
기술료 수입(억 달러)	1.24	26.2	5.61
창업 기업수	-	914	1,409

자료 : 산업통상부, AUTM(미국), EU(유럽).
주 1) 한국, 미국 2013년, 유럽은 2011~12년 기준.
2) 미국은 기술개발에 특허만 포함.
3) 기술료 수입은 한국 2013년 유럽은 2012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7) OECD, WEF 등의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기업의 중간/성장 단계의 중요한 자금 원천으로 인식.

□ 창업 초기부터 성장을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

○ 미국 등에서는 창업 자금 지원과 보육에 있어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강화

- 미국에서는 창업 초기 자금에서 엔젤투자, 인큐베이터의 역할이 확대
  · 다우존스 조사에 따르면, 엔젤투자 및 인큐베이터의 창업 초기 자금 지원 비중은 2007년 13.7%에서 2013년 25.5%로 크게 확대
  · 또한, 유럽에서도 동기간 4.6%에서 26.8%로 상승하며 창업 초기 자금에서 엔젤투자와 인큐베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자금,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생존률과 후속투자 유치율을 높이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가 활성화
  · 전세계 엑셀러레이터는 2016년 3월말 기준 235개로 투자규모는 129.5억 달러, 5,693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음
  ·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회수는 694개 기업, 35.9억 달러로 추정됨
  · 2005년 미국에서 설립된 Y Combinator는 74.2억 달러의 투자재원으로 946개 스타트업을 육성 중이며 에어비엔비(Airbnb), 드롭박스 등의 성공 사례를 보유

< 기업성장단계별 엔젤과 인큐베이터의 참여 비중 >

(%)

단 계	2007	2013
창 업 초 기	13.7	25.5
제 품 개 발	3.3	17.5
매 출 발 생	3.9	9.9
이 익 창 출	3.0	5.3

자료 : Dow Jones Venturesource, 2014.

< 전세계 엑셀레이터 순위>

(단위: 개, 백만달러)

순 위		투자기업	투자규모	투자회수
1	Y Combinator	946	7,424.6	7.9
2	Techstars	661	1,756.4	2.7
3	500startups	393	381.2	1.0
4	DreamITVentures	197	247.2	1.3
5	Startupbootcamp	140	33.1	0.2
6	Seedcamp	118	220.8	1.9
7	TheAlchemist Accelerator	113	65.5	0.6
8	AngelPad	98	371.2	3.8
9	BoostVC	95	11.3	0.1
10	Nxtp.labs	73	29.1	0.4

자료 : Seed DB.
주 : 투자기업 수에 따른 순위임.

다. 회수 단계(Later stage)

○ 벤처기업의 IPO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고 가장 중요한 회수 수단인 M&A 비중은 비교대상국과 큰 격차

- 최근 증시 여건 개선, 코넥스 개장 등으로 벤처기업의 IPO 건수는 늘고 있지만, IPO까지 걸리는 시간은 미국보다 4년 이상 더 소요
  - · 벤처와 중소기업이 상장하는 코넥스 시장 개장(2013년 7월) 등으로 벤처기업의 IPO 건수는 2012년 14건에서 2014년 33건으로 증가
  - · 그러나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 후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2014년 기준 11.9년으로 미국의 7.5년 대비 4년 이상 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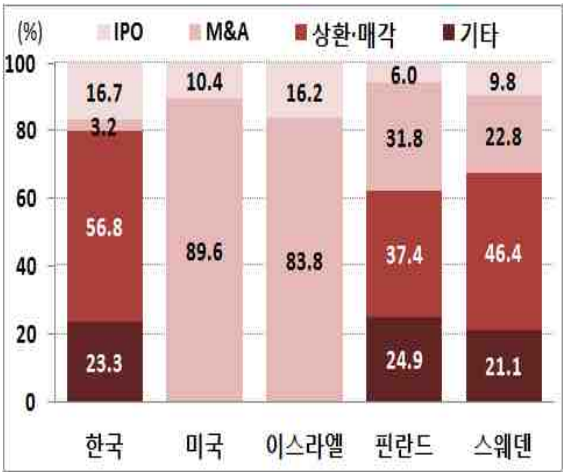
- 한편, 한국의 벤처투자 중 M&A를 통한 회수 비중은 미국의 1/28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큼
  - · 한국의 벤처캐피탈 회수 비중은 2007~2014년 평균 상환매각이 56.8%, 프로젝트 등 기타가 23.3%를 차지했고 M&A는 3.2%에 불과했음
  - · 반면, 미국은 동기간 M&A 비중이 89.6%, 이스라엘 83.8%에 달했고 핀란드와 스웨덴도 각각 31.8%, 22.8%를 기록

<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기업공개(IPO) 건 수 비교 >

	한국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
2007	45	81	8	8	7
2008	27	8	0	1	1
2009	28	8	2	6	1
2010	39	47	2	7	1
2011	40	46	2	7	1
2012	14	50	0	5	1
2013	27	74	2	5	1
2014	33	105	7	3	1

자료 : EY, Venture capital insights,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VCA.
주 : 핀란드, 스웨덴는 IPO, 추가매각의 합임.

< 벤처캐피탈의 회수유형별 비중('07~14년 평균) 비교 >



자료 : EY, Venture capital insights,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VCA.
주 : 미국, 이스라엘은 IPO, M&A금액의 합임.

라. 재투자/재도전

○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에도 '실패자'라는 낙인, 재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이 재도전 기회를 낮춤

- 실패한 창업자는 재도전하기도 곤란
  ·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이내 생존율은 2012년 기준 31%로 스웨덴 63%의 절반 수준이며 미국, 이스라엘 등보다도 10%p 이상 낮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균 재창업 횟수는 0.8회에 불과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1.8회에 비해 크게 낮음[8)]

- 국내 재창업이 활발하지 못한 원인은 파산처리 제도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 체납국세 등에 대한 부담, 재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파산처리 기간, 비용, 회복률 모두 미국 수준으로 파산 제도의 국제 경쟁력은 세계 4위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체납 국세의 경우 파산 및 면책에서 제외되고 신용불량에 대한 기록도 은행들이 공유하며 면책 후에도 적극적 행동으로만 삭제가 가능함
  · 또한, 창업시까지 자금 조달 비중[9)]도 자기자금 80%, 은행·비은행 대출 12.1%로 높은데 파산으로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대출도 용이하지 않아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창업기업 생존율(%)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한국	60	46	38	33	31
미국	80	69	60	52	47
이스라엘	86	69	57	48	42
핀란드	78	64	55	50	41
스웨덴	95	86	75	69	63

자료 : OECD, BLS(미국 노동통계국).
주 : 2012년 기준, 이스라엘 2011년, 미국은 2010년임.

< 파산처리 비교 >

	기간(년)	비용(%/자산)	회복률(Cents/$)
한국 (4위)	1.5	4	83.6
미국 (5위)	1.5	8	80.4
이스라엘 (29위)	2.0	23	62.1
핀란드 (1위)	0.9	4	90.1
스웨덴 (19위)	2.0	9	76.6

자료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6'.

8) 실리콘 밸리에서는 '빨리, 자주 실패하라(Fail fast, fail often)'이라는 문구가 보편화되어 있고 창업 실패 경험(40%)은 성공 경험(39%)과 대등하게 창업의 중요 요소로 간주, Rasmussen college, 2012.
9) 창업진흥원, 2014 창업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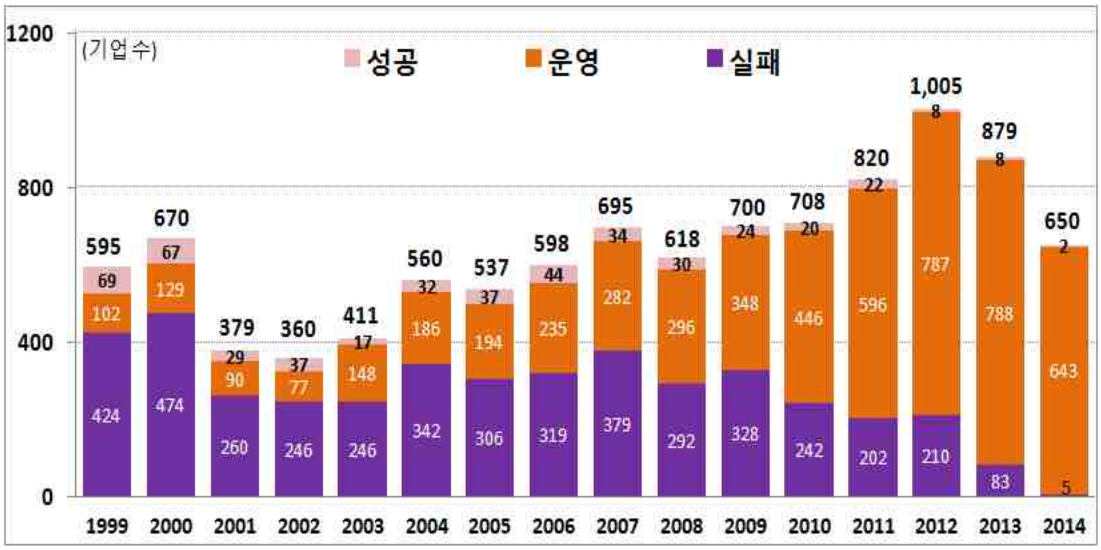
□ 창업 국가 이스라엘의 벤처 성공률

○ 창업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스타트업들의 약 5%만이 성공

- 이스라엘 스타트업 중 52%만이 운영되고 있음
  - 이스라엘은 1999~2014년까지 1만 185개 하이테크 스타트업이 설립되었고 2015년 현재 46%는 운영되지 않고 약 5,400개만이 운영
  - 현재 운영되지 않는 46% 중 662개 스타트업은 인수합병으로 회수
  - 현재 운영되고 있는 5,400개 기업의 대부분은 최근 3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1999~2007년 사이 설립된 기업은 1,184개로 약 22%에 불과함

- 이스라엘 스타트업 약 5%만이 성공
  - 성공 기업은 100명 이상 고용, 연매출 1억 달러 이상, 회수률이 1보다 큰 경우 등으로 분류
  - 1999~2014년까지 설립된 스타트업 중 약 5%인 480개 기업만이 성공
  - 성공 기업의 약 83%가 평균 22.5백만 달러의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했지만 81개 기업은 외부투자자금을 전혀 받지 않았음

<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 >



자료 : IVC Research Center.
주 : 1999~2014년까지 설립 연도 기준으로 10,185개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들을 조사.

3. 시사점

○ 국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성장단계별로 자금 지원, 기술 이전, 재도전과 창업 의식 등 환경을 보완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 **첫째, '죽음의 계곡' 극복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투자자금의 신규 원천을 꾸준히 발굴해야 함**
  - 국내 창업·벤처 투자자금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미국, 이스라엘 등에 비해서는 규모가 여전히 작은 만큼 정부의 모태펀드 등을 통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금 원천도 꾸준히 발굴
  - 특히, 930조원이 넘어선 단기부동자금이 창업·벤처를 지원하는 투자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

- **둘째, 벤처 생존률과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창업 보육 기관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함**
  - 창업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이 꾸준히 설립되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은 뒤쳐져 있는 만큼,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 성공 사례 개발 등을 통해 경쟁 문화를 확산해야 함
  - 보육 대상자 선정 시에도 아이디어, 현재 시장 상황 및 가능성 등 명확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설정된 보육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
  - 한편,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 사이언스 파크, 창업 보육센터와 역할이 겹치지 않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개발, 기술 사업화, 후속 투자유치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

- **셋째, 기술이전이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형'의 지원으로 변화시키고 지원 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보완**
  - 국내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된 기술이 창업과 사업화로 활발히 연결되고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형으로 지원 체계를 변화
  -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기술 평가를 체계화하고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도 보증 중심이 아닌 투자 개념의 기술금융이 확산되도록 금융 환경을 보완

· 한편, 창업 기업에 지원된 정부·벤처투자자금이 기술 개발 등에 투명하게 집행·운영되고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더불어 창업자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함

- **넷째, 유럽의 '창업 매니페스토(Manifesto)'와 같은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가 커뮤니티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창업 매니페스토와 같은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기술 창업과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함
  · 특히, 기존 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평가와 지원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기술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투명성도 제고

- **다섯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IT 인프라에 기반한 특화된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세계적인 수준인 국내 IT인프라를 접목시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ICT 기반 창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융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창업과 스마트 데이터(Smart Data), 핀테크(Fintech), IoT 서비스 등 신시장과 연관된 창업 지원을 강화

- **여섯째, '실패=경험'의 확산을 통해 재도전이 용이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실리콘 밸리에서도 첫 번째 창업으로 성공 확률은 18%에 불과하고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벤처 성공률도 5%에 불과한 만큼 재도전이 용이한 사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를 위해, 실패 이후 파산·정리 제도에 대한 컨설팅 강화, 재도전자에 대한 멘토링 강화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 재도전에 대한 정책 자금 확대 등을 통해 재도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조호정 연 구 위 원 (2072-6217, chjss@hri.co.kr)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